

# 삼·사람

/category/bosal.asp

## 부처님 그리기에 내 예술 생명 걸었죠

조형주의 선구자 김흥수 화백

“나 불자 아니에요.” 불교와의 인연을 묻는 기자에게 대뜸 김흥수 화백(88)은 부인부터 한다.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변에서 반대의사들이 튀어나온다.

김 화백의 ‘아름다운 동반자’ 장수현 관장(김흥수미술관은 ‘온 집안이 불자예요. 사실 불자세요. 미흡하다 생각해서서 그리시는거지. 불자 맞아요’라고 거든다. 부인의 말에 김 화백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저 살짝 미소지을 뿐.

평창동 김흥수미술관에는 미륵반가사유상을 그린 ‘염(念)’과 ‘오(悟)’가 마주 걸려있다. 생각에 잠긴 ‘염’, 살며시 미소짓는 ‘오’를 보며 ‘상호 위에 알알이 새긴 점 표현조차도 하나하나 신경써서 작업했다’는 김 화백은 “‘염’은 인생문제를 생각하는 부처님을 구상으로, 빛을 환하게 하는 만다라를 추상으로 한 화면에 표현한 것”이라며 자랑스러워한다.

끊임없이 미륵부처님을 그려왔다. 김 화백은 “미륵불을 그릴 때 ‘이것은 국보다’라는 생각을 그림에 투입한다. 그리고 국보에 견줄만한 표현을 이 작품에 했느냐고 몇 번이나 자문자답 하면서 그린다”고 거듭 강조한다.

이런 기를 투입하면서 그려서일까. 일본에서 매해 열리는 코리아 평화미술전(남북 작가전)의 1998년 오사카(大阪)전 때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중년 부인이 김 화백의 ‘미륵불’ 앞에서 ‘빛이 비쳐오며 미륵불이 보인다’고 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왜 부처님을 그리는지 궁금했다.

“학생 때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성모마리아와 아기예수를 그린 그림에 대해 성스럽다고 평한 책을 봤어요. 종교적인 최고 분위기는 예술의 최고 분위기와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처님과 가까웠으니가 당연히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종교적인 엄숙함이 나오는지 보고 싶었어요. ‘부처님’에 내 예술의 생명을 걸었던 거죠.”

‘부처님’이 그려지면 인간사 인생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다. ‘부처님’을 그

리면서 ‘나를 버리라’는 말을 체득했다. 무아지경에 빠졌을 때만이 그림에서 종교 이상의 것도 나올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1977년 ‘염’을 선보이자 평론가들은 김 화백의 조형주의 회화양식을 결정적으로 나타내주는 작품이라고 평했다. 조형주의는 추상과 구상을 같은 화면에 병존시키는 회화양식으로 김 화백에 의해 시작됐다.

“부산 피난 시절, 파리에서 추상이 유행한다는 기사를 보고 우리도 추상을 해야 한다는 화가들 사이에서 홀로 반대했다”는 김 화백은 “모방

### 추상·구상 공존하는 하모니즘 회화 추구 13일 부산서 米壽전

만 하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무엇이 새로운가 자문자답했다”고 말한다.

이 고민 끝에 탄생한 것이 주관(추상)과 객관(구상)을 한 화면에 표현하는 것이었다. 김 화백이 1970년대 꽃피운 조형주의의 발로이자, 하모니즘의 단초였다.

미수가 되도록 붓을 손에서 놓지 않는 김흥수 화백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10월 13일 전시를 한다. 도시갤러리 개관 3주년 초대전으로 부산과 조우하는 김 화백, 전시를 마치는 11월 17일에는 ‘미수’를 맞는 기쁨을 친우들과 나눌 생각이다.

전시 준비를 위해 지난 7월에는 부산을 찾았다. 전시장도 둘러볼겸 나선 김에 통도사에도 들렀다. 생전 처음 KTX를 탔던 흥분이 통도사에서서는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별천지였어요, 내게는.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죠. 물론 내가 풍경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리기에 좋은 그림

을 그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조금 했지만요.” 을 여름 내내 부처님만 그렸다. 통도사의 강렬한 인상은 천진난만한 부처님 상호를 만들어냈다. 한창 마무리작업 중인 세 분의 소품 부처님들은 도시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다.

조금씩 손해보고 사는,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이 건강 비결이라는 노화백, 두 번에 걸친 김흥수 화백과의 만남은 신세계를 접하는 신선함이었다.

첫 번째 만남에서 김 화백은 하얀 정장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구두까지 하얗게 맞춰 신은, 하얀 턱수염의 노 신사는 매력적인 향기를 뿜어냈다. 두 번째 만남은 검은 셔츠에 크고 파란 팬던트가 인상적인 차림새로 멋쟁이의 향취를 느낄 수 있었다.

멋쟁이로 사는 건강비결을 듣고 싶었다.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건강비결”이라고 강조한다. “남을 속이면 속에 음침한 응어리가 저서 끊임없이 나를 위협하기 때문에 끝이 안좋다”며 “모든 것을 용서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살자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지금 이 순간도 김흥수 화백은 밤 늦게까지 부산 전시회 준비로 바쁘다. 드로잉과 부처님 그림 등도 마무리 중이다. 전시를 앞두고 준비할 것도 많고, 흥분해서 잠도 푹 자지 못한다.

젊은 시절 전시회를 준비하던 때나, 여든이 넘어 미수를 바라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시회를 앞둔 화가의 심장은 두근두근덜 뿐이다.

글=김지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미륵부처님 그릴 때는 국보라는 생각 투입하죠 또, 그에 견줄만 하게 표현 되는지 자문자답 합니다”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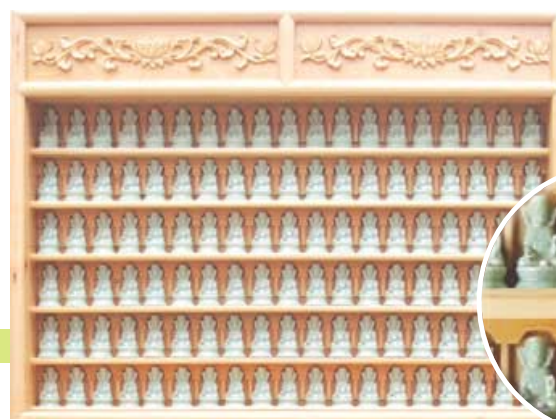
중등 팔각불촉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불촉등)

참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모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